‘善·惡’은 부메랑



新 불교사자성어

⑮ 인과응보(因果應報)

인과응보(因果應報), ‘선악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뜻이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고 하는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와 같은 뜻이다. 주로 선행보다는 악행을 했을 때, 죗값을 치른다는 개념으로 쓰이는 사자성어다.

인과응보,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불교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구이다. 그래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지겹도록 듣던 말이기도 하고 절이나 교회, 성당 등에서도 가장 많이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혹 인과응보 같은 말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나 하는 말이라고 폄하하는 이도 있다.

조과선사(鳥窠禪師, 741~824)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백낙천(白樂天, 772-846)과의 일화가 있다.

백낙천은 이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가 항주 자사(도지사)로 부임했는데, 마침 근처에 조과선사라는 고승이 있었다. 하루는 백락천이 조과선사를 찾아가서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좋은 말씀을 부탁했다. 좌우명이라면 누구보다도 지식의 백과사전인 백낙천이 더 많이 알고 있을 터였다. 조과선사는 다음과 같은 한 구의 게송을 써주었다.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오(諸惡莫作 衆善奉行(……) 是諸佛教)”

“기거야 세 살 먹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 아닙니까?”

백낙천은 실망했다. 너무나도 흔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삼척동자도 알지만 팔십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법. 백낙천은 그제야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큰 절을 했다고 한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의(義)이고 불의인지, 그리고 무엇이 공(公)이고 사(私)인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거의 없고 하루하루 밥이나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치열한 경쟁구조,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남에게 주는 피해쯤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매일 같이 아우성이다.

우리는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남의 행복도 중요시해야 하는데, 남의 행복은 관심 밖이다.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 돈도 떼먹는다. 사기를 치고 공익을 도외시하고 사욕을 챙기는 등 부정한 짓을 한다. 윤리 도덕(Morality), 도덕적 해이(道德的解弛, Moral Hazard)가 제로 수준에 가깝다. 도덕성과 비도덕성에 대한 인식이나 구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과응보,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부메랑(Boomerang)’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되어 되돌아오다’ 또는 ‘어떤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등의 뜻이다.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쓰는 굽은 막대 모양의 무기라고 한다. 무기의 일종으로 힘껏 던져서 목표물에 맞으면 되돌아오지 않지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특성을 갖고 있는 신기한 무기 겸 장난감이다.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관성을 지닌 부메랑의 법칙은 곧 인과응보의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온다’는 말이 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되고, 악한 짓,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다.

또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되돌아간다(出乎爾, 反乎爾)’는 말도 있는데, 매우 좋은 말이다. 작은 악, 대수롭지 않은 악이라도 반복하다보면 큰 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그 악은 부메랑이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늪으로, 구렁팅이로 몰고 간다. 자승자박. 결국 죽어야 끝나게 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대중 입 막아버린 숭수의 걸상



격절록 강설

⑮ 제4칙 숭수지등(崇壽指凳)

[古則과 着語]

擧, 崇壽指凳子 (只是凳子) 云 “識得凳子 周匝有餘” (十方世界外 更有世界在) 雲門云 “識得凳子 天地懸殊” (減得一半)

숭수(崇壽, 법안문익, 885~958)가 걸상을 가리키며, [단지 걸상일 뿐이다.] 말했다.

“걸상으로 알아도 사방에 남음이이 있다.” [시방세계 밖에 또 세계가 있다.]

운문(雲門, 운문문언, 864~949)이 말했다.

“걸상으로 알더라도 하늘과 땅만큼 현격하게 다르게 된다.” [한 개 반(1/2)으로 줄였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澤廣藏山 狸能伏豹” (任大也 須從地起 更高爭奈有天何)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큰 못이 산을 감추고, 살쾡이가 표범을 능히 굴복시켰다.”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름지기 땅으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또 하늘에 있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評唱]

師云. 無味之談 塞斷人口. 且道 古人為甚麼至理之言却不擧 却指凳子. 諸人且道 有什麼奇特處. 雲門道 “天地懸殊”

“아무런 맛도 없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도다!” 자, 말해보라! 고인古人이 어째서 지극한 이치의 말(至理之言)을 거론하지 않고, 도리어 걸상을 가리켰는가? 여러분은 말해보라! (여기에) 무슨 기특처(奇特處)가 있는가? 운문이 말했다.

“(걸상으로 알더라도) 하늘과 땅만큼 다르게 된다(天地懸殊).”

懷和尚却道 “楠榆木做” 秀圓通道 “四脚著地” 和崇壽一坑埋却. 山僧這裏不要凳子 只要田地上淨潔. 所以雪竇拈云 “澤廣藏山 理能伏豹” 雪竇道如此 未審是明他語 點他話. 是褒是貶. 凡是一拈一提 若是有工夫 自然蓋天蓋地.

회 화상(懷和尚, 천의의회)이 말했다.

“(걸상은) 매화나무와 느릅나무로 만든다(楠榆木做).”

수 원통(秀圓通, 법운운수)이 말했다.

“(걸상은) 네 다리가 땅에 닿는다(四脚著地).”

(이들 모두를) 숭수와 함께 한 구덩이 묻어버려야 한다. 산승의 여기에는 걸상도 필요 없다. 다만 마음(田地)의 정결(淨潔)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설두가 염하기를 “큰 못이 산을 감추고, 살쾡이가 표범을 능히 굴복시켰다”고 하였던 것이다. 설두가 이렇게 말한 것이 그 말을 밝힌 것이지, 그 말을 점검한 것인지, 칭찬한 것인지, 폄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무릇 (설두가) 한 번 언급해본 것이니, 만약 공부를 했다면 자연히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을 것이다.

---

*무미지담 색단인구(無味之談 塞斷人口)는 설두중현이 잘 쓰는 표현이라 “ ” 표시를 하였다.

*천의의회(天衣義懷, 993~1064)는 송대宋代 운문종 스님으로 30세에 출가하여 취봉사 설두중현에게 참학한 후, 그의 법을 이었다. 법운운수(法雲法秀, 1027~1090) 역시 운문종의 스님으로 17세에 출가하여 천의의회에게 참학한 후, 그의 법을 이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⑮ 믿음 편 15

솔직 당당한 지혜의 화신 문수보살

사찰에 가면 사자 등을 타고 있는 동자의 형상이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문수보살이다. 오래 전 문수보살을 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렸으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그러다 철학자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문을 읽고서 나름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낙타와 사자, 어린 아이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낙타는 기존의 관념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는 정신을 상징한다. 인간이 낙타 등에 짐을 실으면 순순히 길을 가는 상황에 빗댄 것이다. 반면 사자는 낙타처럼 ‘너는 해야 한다(You should).’는 정신이 아니라 ‘나는 하고자 한다(I will).’는 자유의지를 상징한다. 그리고 사자보다 위대한 정신은 놀랍게도 어린 아이다. 니체는 어린 아이가 약해보이지만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I am)에서 ‘신’으로 상징되는 낡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힘을 보았던 것 같다.

그런데 니체가 가장 높이 평가한 어린 아이가 사자 등에 타고서 해맑게 웃고 있다. 어른이라면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문수동자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솔직함과 당당함이다. 어린 아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른처럼 눈치를 보지 않고 솔직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문수보살을 동자로 표현한 이유와 의미를 나는 여기에서 찾고 싶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서 문수사리(文殊師利) 또는 문수시리(文殊尸利)를 줄인 말이다. 범어로는 만주슈리(Manjushri)인데, 만주는 ‘달다(甘), 묘하다, 훌륭하다.’는 뜻이고 ‘슈리’는 ‘복덕(福德)이 많다, 길상(吉祥)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문수는 지혜가 훌륭하고 복덕을 지닌 보살이라는 의미다. 사찰 대웅전에서는 석가모니불 좌측에, 대적광전에서는 비로자나불 좌측에 모셔져 있다. 문수신앙이 강한 도량에는 문수전이 따로 있기도 하다.

지혜의 상징답게 문수보살에 대한 신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전은 〈화엄경〉이다. 〈화엄경〉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는 문수보살이 동북방의 청량산(淸凉山)에서 1만의 권속을 거느리고 항상 설법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청량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중국 산시성(山西省)의 오대산(五臺山)이다. 신라 때 화엄종 승려들이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면 제일 먼저 참배했던 곳이기도 하다. 오대산은 보현보살의 상주처인 아미산(峨眉山),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보타낙가산과 함께 중국의 3대 영산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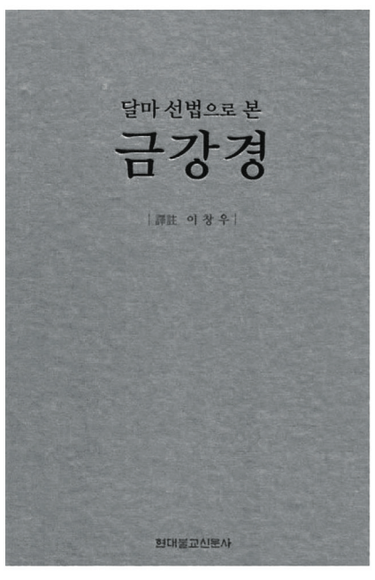
문수신앙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신라의 자장율사(慈藏律師)다. 그는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를 하고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한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강원도 오대산 중대(中臺)에 적멸보궁(寂滅寶宮)을 건립하여 이곳을 문수신앙의 중심 도량으로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이곳 오대산에 오만의 문수보살이 머문다는 신앙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이는 곧 이 땅이 지혜의 터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문수신앙은 관음이나 미타신앙에 비해 그리 유행하지 않았다. 지혜를 중시하는 불교와 잘 어울리는 신앙인데 왜 그런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관음이나 미타신앙에 비해 기복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불교가 그만큼 기복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문수신앙이 성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붓다나 훌륭한 승려들의 법문을 사자후(獅子吼), 그분들이 앉는 좌석을 사자좌(獅子座)라고 한다. 사자루, 사자암과 같은 전각이나 암자도 많다. 모두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지혜를 상징하는 색은 푸른색이다. 문수보살이 청색 옷을 입고 푸른빛을 띠는 사자 위에 타고서 한 편의 멋진 시를 전해준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지혜란 이런 것이 아닐까.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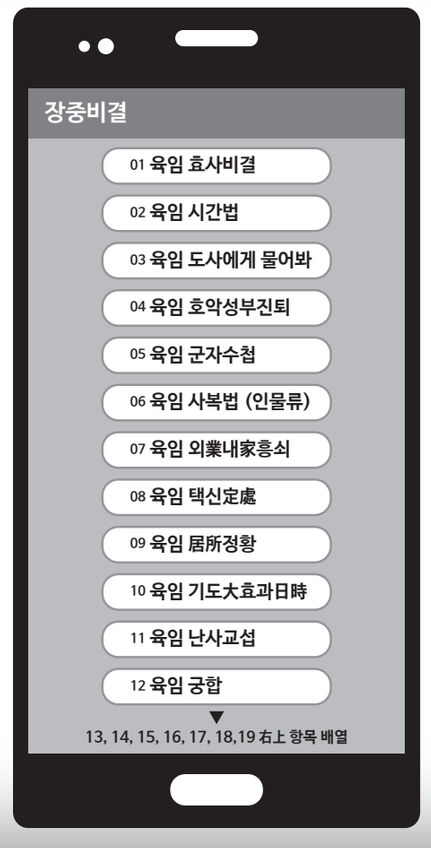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내 휴대폰에 담긴 육임 - 언제 (낮밤) 어디서(韓,中,日,東南亞,美東西部)든 즉단(卽斷)
육임 모바일 앱 ‘장중비결(掌中祕訣)’ 완제품 출시
정확도-속도성-착목도-효과성 보장



장착 종목 순서

01 육임 효사비결(당면사, 일생사, 鬼, 崇, 山所 수법효과유무 등 종합)
02 육임 시간법(事量크기 등)
03 육임 도사에게 물어봐
04 육임 호악,성부,진퇴 여부
05 육임 군자수첩(항목별 판단)
06 육임 사복법(인물류-내방, 출생 겸용)
07 육임 外業內家흥쇠 여부(내방, 출생 겸용)
08 육임 택신 정처 여하(내방, 출생 겸용)
09 육임 居所 정황 가부
10 육임 기도大효과日時 지정
11 육임 난사교섭 여하
12 육임 궁합(로또숫자 참고-출생)
13 육임 월지신살(强勢적용-내방, 출생 겸용)
14 육효 (卽時별 服色별)
15 매화역수(年月日時別-내방, 출생 겸용)
16 월영도(主기도대상적시-출생)
17 사주감정(4종-출생)
18 꿈해몽(일반 태몽)
19 인선(人選)정단

1.영구실행보장 2.분실파손시 재장착보장
3.귀신부정산소탈 적중 4. 해소방법적시
5.초사,시보,내정,비밀,당면사,일생사등 미리 알아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원터치 구성
6.‘효사비결’CD프로그램 위 05,06,07,08,09,10,11종목 신규수록한 업데이트 종결판 출시·교환 공지

정가: 100만원 할인: 70만원(‘19.05.05.까지)
계좌: 농협 317- 0013- 9239- 01 천안종

www.aua.ac • 문의: 02- 6489- 3464 고복자 효사 직통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93. 5층 AUA 개발부